

최 현 정 |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교수

남 수 경 |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소장, 교육학과 교수

매년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IMD)에서 발간하는 IMD 「세계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CY)」은 1989년부터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국제적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4개의 주요 영역(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에서 336개의 세부 항목을 통해 세계 67개국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하드 데이터(164개 지표)와 설문 데이터(92개 지표)를 기반으로 총 256개의 자료를 활용해 국가별 종합 순위 및 영역별 순위를 산출하며, 이를 통해 각국의 강점과 약점을 체계적으로 도출한다.

2024년 발표된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싱가포르가 5년 만에 1위를 차지하였으며, 스위스와 덴마크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전년 대비 8계단 상승하여 20위를 기록하며 높은 순위를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세부 항목에 기초한 국가경쟁력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주요국의 세부 영역별 순위와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세계경쟁력연감」은 1989년부터 IMD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가경쟁력 연례보고서이다. 매년 6월 분야별 통계 데이터와 설문 조사 분석을 통해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며, 올해는 67개 국가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다. 분석 자료는 경제, 비즈니스 커뮤니티, 정부 기관 및 학계의 피드백을 활용한 국내·외의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국가별 순위를 산출한다. IMD 세계경쟁력 분석 결과는 세계 주요국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국제 통계를 가용할 수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1. 개요

국가의 순위는 국가별 전체 순위와 영역/세부영역별 순위로 각각 제공된다. 순위 산출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크게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국내총생산(GDP), 고용률 등의 지표인 하드데이터(164개 지표), 국가경쟁력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설문데이터(92개 지표), 그리고 참고 자료로 사용되는 배경데이터(80개 지표)로 구성된다. ‘국가별 전체 순위’는 하드데이터와 설문데이터 등 총 256개 지표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다. 한편 영역별 순위는 4개 영역, 즉 경제 성과(economic performance),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 기업 효율성(business efficiency), 인프라(infrastructure)에 대해서, 총 336개의 항목을 토대로 산출된다.

데이터 수집, 표준편차법 적용, 순위 산출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가운데 ‘교육’은 기초 기술, 과학, 인적자원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는 ‘인프라’의 세부 영역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총 공교육비, 1인당 공교육비 지출 등 총 16개 지표(하드데이터 12개, 설문데이터 4개)¹⁾를 토대로 산출하여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1) 교육에 관련된 평가지표는 총 19개이며, 이 중 3개는 배경자료로만 이용하고 전체 순위산출에는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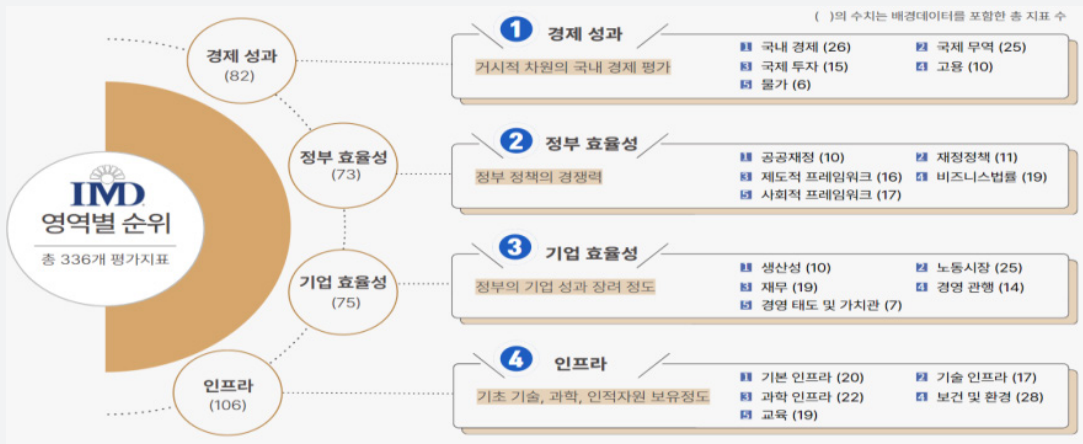
[그림 1] 세계국가경쟁력(WCY) 데이터의 구성과 순위산출 과정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2024) 재구성.

IMD의 각 하위 요인은 특정 영역의 세부적인 모든 측면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하위 요인이 포함하는 기준의 수는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교육(Education)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준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하위 요인은 종합 순위에서 동일한 가중치(5%)를 부여받는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의 환경을 네 가지 주요 경쟁력 영역으로 나누고, 4개 영역별로 각각 5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분한다. 영역별 평가지표의 수(경제 성과: 82개, 정부 효율성: 73개, 기업 효율성: 75개, 인프라: 106개)는 동일 개수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결과를 100%로 산정하고 각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 결과를 조정한다(20개 영역×5%=100%). 이를 통해 각 하위 항목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IMD의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 각 평가 기준을 국가별로 순위를 매기고, 표준값(STD)을 계산하여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
- 20개의 하위 요인의 결과를 각각 5%의 가중치를 적용해 종합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별 종합 점수와 최종 순위를 산출
- 종합 순위는 국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각국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

IMD 세계경쟁력 연감은 각국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올해 발표된 국가경쟁력 순위에 관련한 세계 주요국의 국가경쟁력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및 세부 항목별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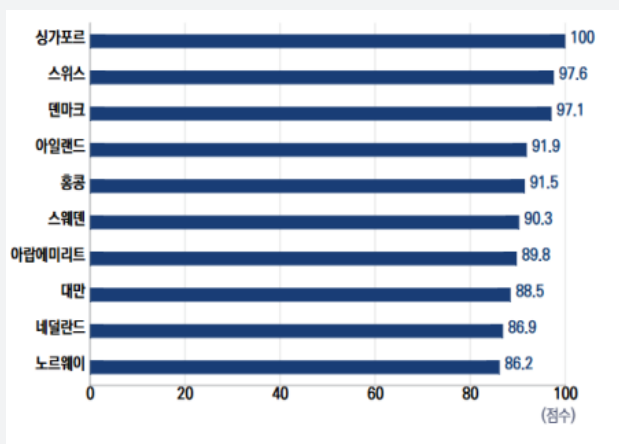
[그림 2] IMD 세계경쟁력 영역별 평가 내용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2024)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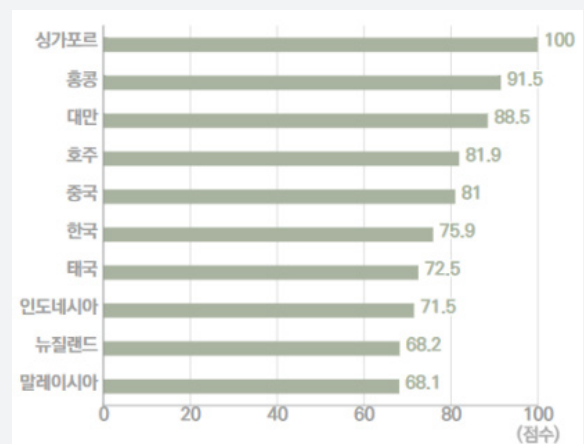
2. 2024년 세계국가경쟁력 순위

가. 국가경쟁력 순위

2024년 IMD 세계경쟁력 순위는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영향, AI 기술 도입 등과 같은 추이를 반영하여, 일부 국가는 상승, 또한 일부 국가는 하락하여 2023년과는 다른 순위 변화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3년도 국가경쟁력 순위 4위였던 싱가포르가 1위로 복귀하였고, 중국의 경우 지난해 전체 경쟁력 순위 21위에서 14위로 상승하는 등 주요 국가들의 경쟁력 순위가 새롭게 조정되었다. 전체적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상위권 변동 순위



[그림 3] 2024 세계 국가경쟁력 상위 10개국



[그림 4] 아시아 국가의 국가경쟁력 상위 1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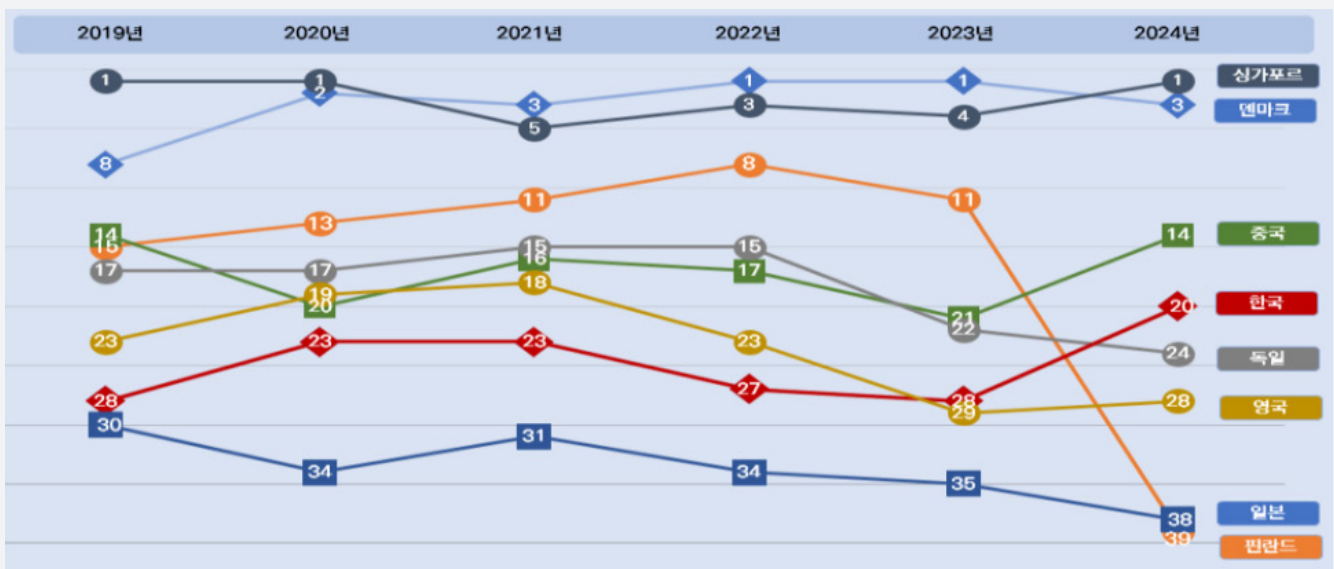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2024)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특징을 살펴보면, 2023년 1위를 차지했던 덴마크는 2024년 3위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경제 성과'가 크게 하락(15위→22위)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싱가포르가 2024년 1위로 상승한 배경에는 '정부 효율성(7위→2위)', '기업 효율성(8위→2위)', '인프라(9위→4위)' 전 영역에서 눈에 띄는 상승을 한 데에 기인한다([그림 5] 참조).

한국의 경우, 2023년 종합 국가경쟁력 순위 28위에서 2024년 20위로 8단계 상승하였는데, 2023년 경제 성과(14위) 및 정부 효율성(38위) 측면의 부진한 측면을 딛고 기업 효율성(33위→23위), 인프라(16위→11위)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향상된 점이 반영된 데에 기인한다.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67개 국가 중 38위로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한 것과 대만이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국제투자의 감소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8위의 경쟁력 순위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괄목할 정도의 성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핀란드의 경우 눈에 띄게 국가경쟁력이 하락하였는데 2024년 국가경쟁력 순위가 39위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28계단 하락한 순위로서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2023년에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압력, 지정학적 갈등이 국가경쟁력에 주요한 도전과제로 여겨졌다면, 2024년에는 AI 기술 도입이 가장 큰 영향 요소로 부상하며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림 5] 2024 세계국가경쟁력 주요 국가 순위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2024)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한국의 영역별 경쟁력 순위

2024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를 기록하며 전년(28위) 대비 8계단 상승하였다. 이는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부문에서 두드러진 개선이 주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은 국가경쟁력의 세부 주요 영역인 ①경제 성과, ②정부 효율성, ③기업 효율성, ④인프라에 대한 세부 영역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 영역에서 2023년 대비 변화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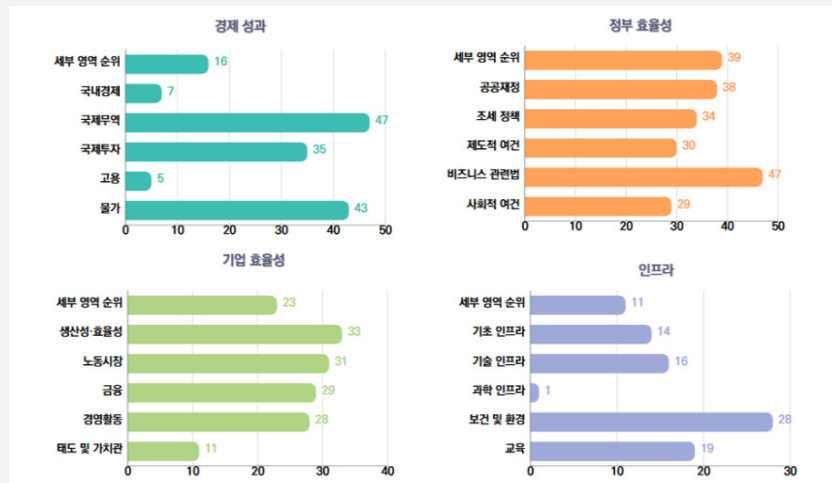
한국의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각 영역 중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의 경쟁력 지수가 상승한 항목은 ‘기업 효율성(33위→23위)’ 영역으로서 전년 대비 10단계 상승한 23위로서, 노동시장과 경영활동에서의 생산성, 노동성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프라’ 부문에서 ‘기초 인프라(23위→14위)’의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항목으로 물리적 인프라와 도시화 기반의 인프라가 보다 강화되었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년 대비 하락한 주요 영역으로는 ‘정부 효율성’ 부문의 ‘조세 정책(26위→34위)’ 항목으로 8단계 하락하였으며, 이는 세제 개편에 따라 세율 부담이 증가된 것이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반적인 한국의 세부 영역을 보다 구체적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6] 참조).

<표 1> 한국의 영역별 IMD 세계경쟁력 순위(2019-2024)

구분	세부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년 대비 변동
		28위(종합)	23위(종합)	23위(종합)	27위(종합)	28위(종합)	20위(종합)	▲8
경제 성과	국내 경제	16	11	5	12	11	7	▲4
	국제무역	45	41	33	30	42	47	▼5
	국제투자	30	30	34	37	32	35	▼3
	고용	10	12	5	6	4	5	▼1
	물가	53	48	51	49	41	43	▼2
	세부 영역 순위	27	27	18	22	14	16	▼2
정부 효율성	공공재정	24	27	26	32	40	38	▲2
	조세 정책	18	19	19	25	26	34	▼8
	제도적 여건	33	29	30	31	33	30	▲3
	비즈니스 관련법	50	46	49	48	53	47	▲6
	사회적 여건	39	31	33	35	33	29	▲4
	세부 영역 순위	31	28	34	36	38	39	▼1
기업 효율성	생산성·효율성	38	38	31	36	41	33	▲8
	노동시장	36	28	37	42	39	31	▲8
	금융	34	34	23	23	36	29	▲7
	경영활동	47	36	30	38	35	28	▲7
	태도 및 가치관	25	15	21	23	18	11	▲7
	세부 영역 순위	34	28	27	33	33	23	▲10
인프라	기초 인프라	23	20	18	16	23	14	▲9
	기술 인프라	22	13	17	19	23	16	▲7
	과학 인프라	3	3	2	3	2	1	▲1
	보건 및 환경	32	31	30	31	29	28	▲1
	교육	30	27	30	29	26	19	▲7
	세부 영역 순위	20	16	17	16	16	11	▲5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9-202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6] 2024 한국의 평가 영역별 IMD 세계경쟁력 순위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2024)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경제 성과’ 부문의 경우, 2024년 한국의 경제 성과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여 종합 순위 16위를 기록했다. 국내 경제는 안정성을 유지하며 7위로 상승했으나, 국제무역(47위)과 국제투자(35위)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여건 악화로 인해 각각 5계단과 3계단 하락했다. 고용 부문은 5위를 유지하며 안정적이었지만, 물가 부문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43위로 2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정부 효율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2024년 한국의 정부 효율성 순위는 39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였다. 공공재정(38위), 제도적 여건(30위), 비즈니스 관련법(47위), 사회적 여건(29위)에서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조세 정책(26위→34위)’ 부문은 세율 부담 증가와 세제 개편의 한계 등의 요인으로 8계단 하락한 34위를 기록하여 전체 세부 항목 중 가장 크게 하락한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 결과로 보이며, 정부 효율성 측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업의 효율성’의 경우, 전년 대비 10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하며, 모든 세부 항목에서 상승 폭을 보인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생산성·효율성(41위→33위), 노동시장(39위→31위), 금융(36위→29위), 경영활동(35위→28위), 태도 및 가치관(18위→11위)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기업 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기업 문화의 긍정적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프라’의 경우, 전년 대비 5계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하며 가장 큰 성과를 보인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과학 인프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1위를 차지했고, 기초 인프라(23위→14위)와 기술 인프라(23위→16위) 부문에서도 각각 9계단과 7계단 상승하였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물리적 인프라 개선이 가장 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교육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7계단 상승한 19위를 기록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품질 강화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IMD에서는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설문 조사 중 각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표, 즉 ‘핵심매력도지표(Key Attractiveness Indicators)’를 통해 그 요인을 파악한다. <표 2>는 주요국들의 ‘핵심매력도지표’ 15개의 순위를 나타낸 것이며, 음영 표시는 국가별로 강점을 의미하는 상위 5개 지표를 나타낸다.

〈표 2〉 주요 국가의 핵심매력도 지표(Key Attractiveness Indicators)(2024)

(단위: %)

지표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핀란드
1	높은 교육 수준 High educational level	95.1	31.6	68.1	76.0	25.7	79.7
2	안정적 인프라 Reliable infrastructure	72.8	32.5	45.1	88.0	41.4	74.7
3	경제의 역동성 Dynamism of the economy	72.8	53.8	18.6	23.0	35.7	10.1
4	숙련된 인력 Skilled workforce	71.6	59.0	55.8	65.0	30.0	73.4
5	경쟁력 있는 R&D 문화 Strong R&D culture	46.9	37.6	41.6	30.0	12.9	41.8
6	개방적이고 열린 태도 Open and positive attitudes	37.0	41.0	11.5	7.0	17.1	26.6
7	정책 안정성 및 예측성 Policy stability & predictability	18.5	26.5	54.0	49.0	74.3	46.8
8	정부의 역량 Competency of government	16.0	10.3	5.3	3.0	58.6	11.4
9	재정 접근성 Access to financing	14.8	49.6	32.7	25.0	15.7	16.5
10	효과적인 법률 환경 Effective legal environment	13.6	27.4	60.2	24.0	50.0	44.3
11	물가 경쟁력 Cost competitiveness	9.9	27.4	10.6	16.0	11.4	8.9
12	친경영 환경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9.9	52.1	12.4	8.0	54.3	17.7
13	기업지배구조의 수준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3.7	15.4	23.0	25.0	22.9	32.9
14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Competitive tax regime	3.7	13.7	9.7	1.0	30.0	2.5
15	노사관계의 화합 Effective labor relations	0.0	12.0	23.0	45.0	7.1	0.0
상위 5개 지표 평균		66.0	51.1	56.6	64.6	55.7	63.8

주: 음영 부분은 상위 5순위까지의 영역을 나타냄.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2024)의 국가별 핵심매력도지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95.1%)’이 가장 매력적인 경쟁력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안정적인 인프라(72.8%)’, ‘경제의 역동성(72.8%)’, ‘숙련된 인력(71.6)’, ‘경쟁력 있는 R&D 문화(46.9%)’ 순으로 산출되었다. 전체 15개의 지표

중에서 이상의 5개 지표가 국가 핵심 역량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과 관련된 만큼 ‘인적 자원’ 요인이 국가의 경쟁력을 이끄는 강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특정 요소에 강점을 보이는 국가들로는 독일, 일본, 핀란드가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교육 수준(독일 68.1%, 일본 76.0%, 핀란드 79.7%)’이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에서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으로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수준(3.7%),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3.7%), 친경영 환경(7.7%), 물가 경쟁력(9.9%), 친경영 환경(9.9%) 등에서 10% 이하로 평가되어 이 영역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경제의 역동성(53.8%), 재정 접근성(49.6%), 친경영 환경(52.1%)에서 강점을 보이며, 기업 활동과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방적이고 열린 태도(41.0%)와 숙련된 노동력(59.0%)도 미국 경제의 주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법률 환경(60.2%), 정책 안정성 및 예측성(54.0%), 숙련된 인력(55.8%)에서 강점을 보이며, 높은 교육 수준(68.1%)과 R&D 문화(41.6%)는 독일 경제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동시에 경제의 역동성(18.6%)이 약점으로 지적되어 변화와 혁신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핀란드의 경우는 ‘높은 교육 수준(79.7%)’이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안정적 인프라(74.7%)’가 뒤를 이은 높은 지수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주요 약점으로는 한국과 유사하게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2.5%)’에 있어 주요한 약점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이 2024년 한국은 ‘고용 성장(Employment-Long-Term Growth)’ 항목과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University Education Index), 청년 실업률(Youth Unemployment) 감소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며 경제 안정성과 교육경쟁력을 강화했다.²⁾ 반면, 고급 기술 수출과 여성 리더십, 창업 활동의 감소는 한국 경제와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창업 지원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항목별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프라(infrastructure)’ 영역에 포함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교육 영역의 국가경쟁력

4개 경쟁력 평가 영역 중 ‘인프라’는 정량 통계자료를 나타내는 하드데이터 60개 지표, 각국 경영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 24개 지표, 통계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배경자료로 활용되는 22개 지표 등 총 10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인프라’ 영역은 기본적으로 기초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 및 환경, 교육 등 총 5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교육은 20%의 구성 비율로 설계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교육 영역에 대한 평가지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개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교육 영역에 대한 평가지표는 정량 자료 12개, 설문자료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전체 순위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는 배경 자료가 3개 있다.

2) 구체적인 수치는 2024 IMD(2024: 203)에 명시된 ‘고용 성장(Employment - Long-Term Growth)’ 0.82%→1.14%,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University Education Index)’ 14.65→21.28점, ‘청년 실업률(Youth Unemployment)’ 7.1 → 5.8%

〈표 3〉 인프라 영역의 평가 항목의 구성

(단위: %)

인프라(Infrastructure)				
	하드데이터	설문자료	배경 자료*	총계
기초 인프라 Basic Infrastructure	8	5	7	20
기술 인프라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10	7	0	17
과학 인프라 Scientific Infrastructure	15	3	4	22
보건 및 환경 Health and Environment	15	5	8	28
교육 Education	12	4	3	19
총계	60	24	22	106

주: *배경 자료는 순위를 위해 산출되는 총점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2024).

〈표 4〉는 ‘교육’ 경쟁력 순위평가에 활용되는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국외 자료로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의 통계자료가 있다. 〈표 4〉는 교육 영역의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세부적인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의 1~12번까지의 지표는 정량 자료를 기초로 산출하며, 13~16번까지의 자료는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나머지 17~19번까지의 지표는 순위산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배경자료로 사용된다. 이때, 설문자료의 공통적인 특징은 본 설문 조사의 대상자가 기업의 경영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고 설문의 항목들이 기업의 ‘경영적’ 측면과 연결되어 있어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경영교육, 언어능력 교육 영역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한계를 갖는 측면이 있다.

[그림 7]은 주요 국가들의 교육 영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의 교육과 관련된 지표들을 기초로 산출된 주요 국가(한국, 핀란드, 미국, 일본)의 교육경쟁력 순위는 2024년 유럽 국가인 스위스가 인프라 부문 중 교육 영역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은 19위로서 전년 대비 7계단 상승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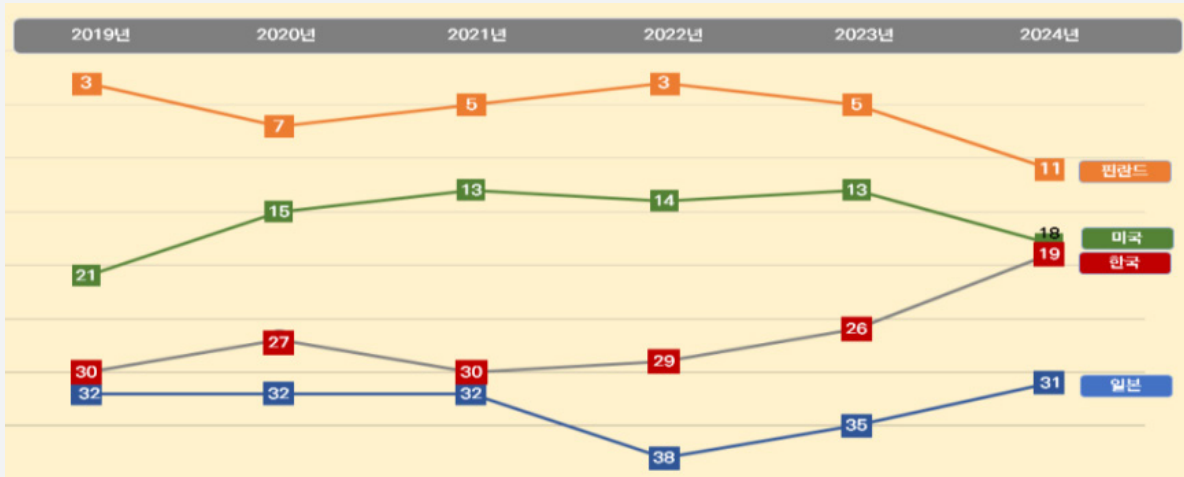
핀란드는 전체 ‘교육’ 항목에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11위를 차지하며, 한국과 유사한 교육 강국으로서 고등교육 이수율, 학생-교사 비율, 공교육비 지출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체 교육경쟁력 순위 31위로 교육 수준과 효율성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글로벌 개방성과 유학생 유입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년 대비 7단계 상승한 19위로 높은 학업 성취도와 고등교육 이수율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국제적 개방성과 언어 경쟁력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14위로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교육지표를 보유했으나, 공교육비 대비 성과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IMD 교육경쟁력 순위평가에 사용되는 세부 지표별 조사 내용

항목 번호	세부 지표	조사 내용	자료 출처 및 연도	참고
4.5.01	GDP 대비 공교육비 Total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GDP 대비 총 공교육비 비율(%)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 Eurostat · UNESCO · 각 국가 자료	2022
4.5.0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Total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per Student	모든 교육 단계에 등록된 학생당 공교육비(USD)	· OECD Education at a Glance · UNESCO · 각 국가 자료	2021
4.5.04	학생-교사 비율(초등) Pupil-Teacher Ratio(Primary Education)	(초등) 전일제 등록 학생 수를 교직원 수로 나눈 값(명)	· UNESCO · 각 국가 자료	2022
4.5.05	학생-교사 비율(중등) Pupil-Teacher Ratio(Secondary Education)	(중등) 전일제 등록 학생 수를 교직원 수로 나눈 값(명)	· UNESCO · 각 국가 자료	2022
4.5.06	중등학교 등록률 Secondary School Enrollment	전일제 교육을 받는 학령기 학생의 비율(%)	· OECD Education at a Glance · 각 국가 자료	2022
4.5.07	고등교육 이수율 Higher Education Achievement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 OECD Education at a Glance · 각 국가 자료	2022
4.5.08	여성의 학위 취득률 Women with degrees	25-65세 여성의 학위 취득률(%)	· OECD Education at a Glance · 각 국가 자료	2022
4.5.09	외국인 유학생 유입 Student Mobility Inbound, per 1,000 inhabitants	인구 1,000명 당 국내에서 유학 중인 고등교육단계 외국인 학생 수(명)	· UNESCO · 각 국가 자료	2022
4.5.11	교육성과(PISA) Educational Assessment - PISA	15세 대상 PISA 점수(점)	· PISA (OECD) http://www.oecd.org/pisa/	2022
4.5.12	교육성과 (PISA-부진학생 제외) Students Who are Not Low Achievers- PISA	수학, 과학, 읽기 영역에서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제외한 학생 비율(%)	·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 UNESCO · 각 국가 자료	2023
4.5.17	대학교육 인덱스 University Education Index	Times Higher Education University 순위 (※ 해당 국가에서 THE 순위 포함된 대학 수 33%, 총점수 33%, 1인당 총점수 33% 가중치 부여하여 지수 산출)	· UNESCO · 각 국가 자료	2024
4.5.18	비문해력 Illiteracy	총인구 대비 15세 이상의 비문해율(%)	· UNESCO · 각 국가 자료	2024
4.5.14	초·중등교육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초·중등교육의 국가 경제 경쟁력 수요 충족 정도	· UNESCO · 각 국가 자료	2024
4.5.15	대학교육 University Education	고등교육의 국가 경제 경쟁력 수요 충족 정도	· UNESCO · 각 국가 자료	2024
4.5.16	경영교육 Management Education	경영 교육의 기업 경쟁력 수요 충족 정도	· UNESCO · 각 국가 자료	2024
4.5.19	언어능력 Language Skills	언어능력의 기업 요구 충족 정도	· UNESCO · 각 국가 자료	2024
4.5.02	1인당 공교육비 Total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per Capita	국민 1인당 총 공교육비(USD)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 Eurostat, UNESCO · 각 국가 자료	2022
4.5.10	국내 학생 유학생 수 Student Mobility Outbound, per 1,000 inhabitants	인구 1,000명당 해외에서 유학 중인 국내 고등교육 학생 수(명)	· UNESCO · 각 국가 자료	2021
4.5.13	영어 유창성(TOEFL) English Proficiency - TOEFL	TOEFL 점수(점)	· Educational Testing Service	2022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2024; 574-577)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7] 주요 국가의 교육경쟁력 순위(2019-2024)

주: '인프라' 영역의 세부 항목인 '교육(education)' 순위를 나타냄.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2019-2024)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8] 교육 관련 세부 지표별 경쟁력 순위(2024)

주: []는 IMD 원문의 '교육(Education)' 세부 항목 번호를 의미함.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2024)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8]은 교육 관련 세부 지표에 대한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부록] 참고). 2024년도 발표된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의 교육경쟁력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고등교육 이수율, 연구개발(R&D) 성과 등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으나, 대학교육과 언어능력 관련 항목에서 개선이 더딘 모습을 보였다. 2023년도에 이어 올해의 평가에서도 연구개발(R&D

과제당 연구원 수, 연구사업비, 총지출 등)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기록하며 강점으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과학 인프라'와 '기술 혁신' 관련 항목에서 세계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고등교육 이수율 부문에서 세계 4위를 유지하며, 작년에 이어 2024년도에도 모두 한국 교육의 질을 대표하는 강점으로 유지되었다. 'PISA 점수'에서는 상위 5위를 기록하며 높은 학업 성취도와 함께 꾸준히 한국 교육의 핵심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크게 상승한 항목 중 '대학교육인덱스(THE 평가순위)'는 2023년 22위에서 올해 12위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정성 평가 영역에서의 '대학교육'은 46위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육의 국가 경제 경쟁력 수준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같이 대학교육은 공교육비 투자와 더불어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학 시스템의 혁신 및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적하였다.

GDP 대비 공교육비(30위) 및 1인당 공교육비(29위) 또한 낮은 순위를 기록하며, 공교육 투자 부족이 여전히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교육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약점으로 인식되는 영역 중 하나인 영어 유창성(48위)과 국제 유학생 유치 비율(42위)은 전년도에 이어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아, 국제적 개방성 부문에서 개선이 시급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3년과 2024년 IMD의 한국 교육경쟁력은 '고등교육 이수율(4위)'과 '교육성과(PISA 점수)(5위)'와 같은 강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한 반면, 정성 평가 영역에서는 전년 대비 초·중등교육(31위), 언어능력(42위→35위), 대학교육(49위→46위), 경영교육(46위) 등에서 낮은 평가를 기록하며 유사한 약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2024년의 정성 평가에서는 일부 영역에서 소폭 개선이 나타났다. 다만,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대학교육과 언어능력 등의 세부 영역에서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 초중등교육의 교사당 학생 수 비율이 초등교육(42위), 중등교육(33위)의 교육의 구조적인 한계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초등교육 효율성과 영어 유창성은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 혁신과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이러한 소폭 개선을 확장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4. IMD 세계경쟁력 순위평가가 주는 시사점

가. 종합 정리

2024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갈등과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이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충돌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키며, 글로벌 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가별로 디지털화, 혁신, 지속 가능성 등에서 강점을 보인 국가들이 경쟁력을 강화했다.

2024년도 IMD 세계경쟁력 순위는 67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외 정량 자료와 정성 자료를 통해 4개의 영역(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을 분석하여 산출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경제는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지만, 여전히 다양한 난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각국은 경기 부양과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팬데믹으로 인해 부진했던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혁신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와 기술 혁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5G 인프라, AI 기반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등의 특성이 각국의 경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만큼 기술적 적응과 혁신 역량에서 뒤처진 국가는 경쟁력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경향이 강했다.

2024년 세계경쟁력 순위 결과, 싱가포르,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 국가로 선정되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5년 만에 1위를 탈환하며, 정부 효율성과 기술 혁신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스위스와 덴마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과 고도화된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스위스는 금융과 기술 혁신에서, 덴마크는 지속 가능성과 환경친화적인 정책에서 강점을 보였다. 특히,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은 규모가 작고 우수한 교육시스템과 효율적인 제도를 갖추며, 국제 무역에서 이웃 국가들과의 접근성이 높은 국가라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스위스, 덴마크는 각각 1위~3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정책과 혁신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2024년 IMD 교육경쟁력 영역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전체 교육 순위는 2023년(26위) 대비 19위로 7단계 상승하였으며, 고등교육과 연구개발 관련 지표에서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한국 교육의 강점으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업 성취도와 고등교육 이수율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기초 학문 수준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한, 고등교육 이수율은 4위로,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의 교육열과 학업 환경이 강력한 뒷받침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개발(R&D) 역량 역시 한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과학 및 연구 인프라 분야는 1위를 기록하며, 고등교육과 R&D 기반의 혁신 역량이 한국 경제에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교육 지표(THF 평가) 또한 2023년 22위에서 2024년 12위로 상승하며, 글로벌 수준의 고등교육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몇 가지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두드러지는 약점 중 하나는 공교육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다. GDP 대비 공교육비는 30위, 국민 1인당 공교육비는 29위로,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교육 인프라와 학습 환경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언어능력의 낮은 순위는 국제적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영어 유창성(TOEFL 점수)은 48위, 언어능력은 35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한국 학생들의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이어져, 국제적 학문 교류와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개방성 부족도 중요한 과제다. 외국인 유학생 유입 비율은 40위로 낮게 평가되며, 글로벌 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는 한국 교육의 국제적 네트워크 부족과 더불어 다문화 환경 조성의 미흡함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시사점

2024년 IMD 교육 경쟁력 분석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드러내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고등교육과 연구개발(R&D)에서 세계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교육 투자 부족, 언어능력 약화, 국제적 개방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교육 투자 확대와 교육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 GDP 대비 공교육비와 국민 1인당 공교육비가 국가경쟁력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교육 자원의 질적·양적 부족으로 이어져 학습 환경의 개선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비를 확대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언어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언어능력과 영어 유창성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와 학문 환경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영어 교육 강화와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혁신이 필요하며, 글로벌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국제적 개방성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입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글로벌 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는 국제 학문 교류와 다문화 환경 조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대학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함으로써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의 디지털화와 첨단 기술 활용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은 디지털 학습 환경이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며, 이로 인해 교육 접근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디지털 학습 도구와 환경을 강화하고, 미래형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학 협력 강화와 실질적 교육 가치 증대가 요구된다. 대학교육의 THE 평가순위는 12위로 상승했으나, 실질적 노동시장 연계성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과 산업 간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통해 고등교육이 국가 경제와 사회적 요구에 더욱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IMD 세계국가경쟁력 평가는 각국이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단초들을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대학 재정 투자의 확대와 산학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은 한국이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토대로 한국은 세계적인 학문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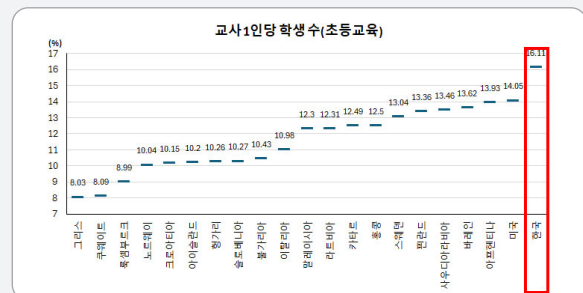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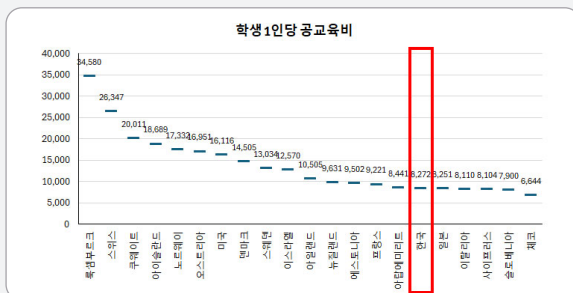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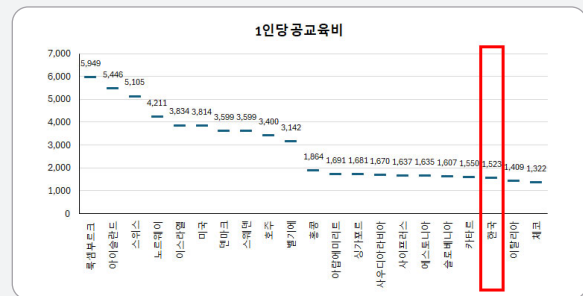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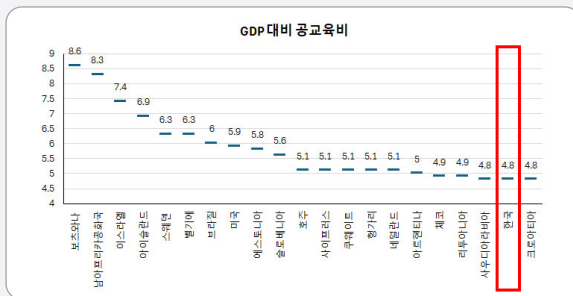
IMD World Comprehensiveness Center(2019-2024).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Lausann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부록〉 ‘[4.5] 교육(Education)’ 영역 세부 지표(19개)

[4.5.01] GDP 대비 공교육비(%) ⁽²⁰²²⁾			[4.5.02] 1인당 공교육비(USD) ⁽²⁰²²⁾		[4.5.03] 학생 1인당 공교육비(USD) ⁽²⁰²²⁾		[4.5.04]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등교육) ⁽²⁰²¹⁾	
1	보츠와나	8.6	룩셈부르크	5,949	룩셈부르크	34,580	그리스	8.03
2	남아프리카공화국	8.3	아이슬란드	5,446	스위스	26,347	쿠웨이트	8.09
3	이스라엘	7.4	스위스	5,105	쿠웨이트	20,011	룩셈부르크	8.99
4	아이슬란드	6.9	노르웨이	4,211	아이슬란드	18,689	노르웨이	10.04
5	스웨덴	6.3	이스라엘	3,834	노르웨이	17,332	크로아티아	10.15
6	벨기에	6.3	미국	3,814	오스트리아	16,951	아이슬란드	10.20
7	브라질	6.0	덴마크	3,599	미국	16,116	헝가리	10.26
8	미국	5.9	스웨덴	3,599	덴마크	14,505	슬로베니아	10.27
9	에스토니아	5.8	호주	3,400	스웨덴	13,034	불가리아	10.43
10	슬로베니아	5.6	벨기에	3,142	이스라엘	12,570	이탈리아	10.98
21	호주	5.1	홍콩	1,864	아일랜드	10,505	말레이시아	12.30
22	사이프러스	5.1	아랍에미리트	1,691	뉴질랜드	9,631	라트비아	12.31
23	쿠웨이트	5.1	싱가포르	1,681	에스토니아	9,502	카타르	12.49
24	헝가리	5.1	사우디아라비아	1,670	프랑스	9,221	홍콩	12.50
25	네덜란드	5.1	사이프러스	1,637	아랍에미리트	8,441	스웨덴	13.04
26	아르헨티나	5.0	에스토니아	1,635	한국	8,272	핀란드	13.36
27	체코	4.9	슬로베니아	1,607	일본	8,251	사우디아라비아	13.46
28	리투아니아	4.9	카타르	1,550	이탈리아	8,110	바레인	13.62
29	사우디아라비아	4.8	한국	1,523	사이프러스	8,104	아프헨티나	13.93
30	한국	4.8	이탈리아	1,409	슬로베니아	7,900	미국	14.05
31	크로아티아	4.8	체코	1,322	체코	6,644	42 한국	16.11

주: 1인당 공교육비는 ‘배경자료’ 지표를 의미함.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2024).



2024년 세계국가경쟁력과 한국의 교육경쟁력 분석



[4.5.05] 교사1인당 학생 수(비)
(중등교육)(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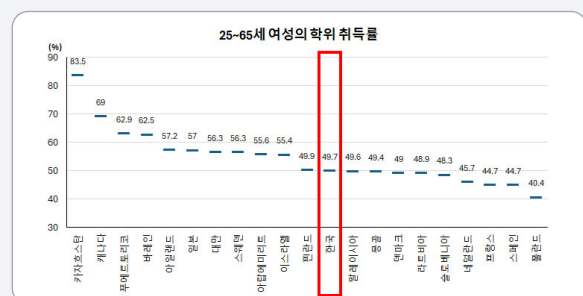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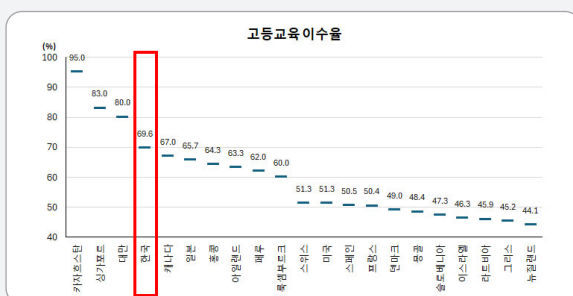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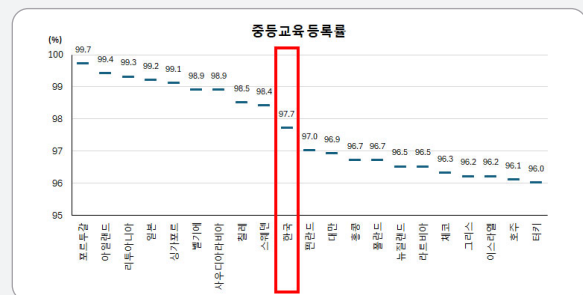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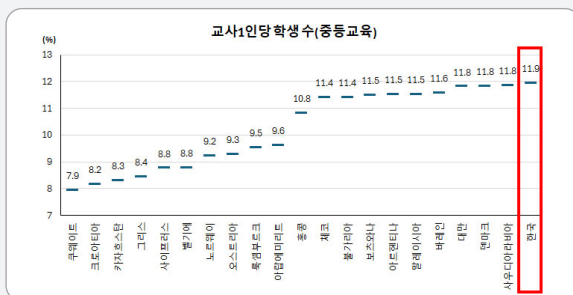
[4.5.06] 중등교육 등록률(%
(2022)

[4.5.07] 고등교육 이수율(%
(20)(2022)

[4.5.08] (25~65세)여성의
학위 취득률(%)(2022)

1	쿠웨이트	7.93	포르투갈	99.7	카자흐스탄	95	카자흐스탄	83.5
2	크로아티아	8.16	아일랜드	99.4	싱가포르	83	캐나다	69
3	카자흐스탄	8.28	리투아니아	99.3	대만	80	푸에르토리코	62.9
4	그리스	8.42	일본	99.2	한국	69.6	바레인	62.5
5	사이프러스	8.75	싱가포르	99.1	캐나다	67	아일랜드	57.2
6	벨기에	8.77	벨기에	98.9	일본	65.7	일본	57
7	노르웨이	9.22	사우디아라비아	98.9	홍콩	64.3	대만	56.3
8	오스트리아	9.26	칠레	98.5	아일랜드	63.3	스웨덴	56.3
9	룩셈부르크	9.53	스웨덴	98.4	페루	62	아랍에미리트	55.6
10	아랍에미리트	9.6	11 한국	97.7	룩셈부르크	60	이스라엘	55.4
21	홍콩	10.81	핀란드	97	스위스	51.3	핀란드	49.9
22	체코	11.39	대만	96.9	미국	51.3	한국	49.7
23	불가리아	11.4	홍콩	96.7	스페인	50.5	말레이시아	49.6
24	보츠와나	11.48	폴란드	96.7	프랑스	50.4	몽골	49.4
25	아르헨티나	11.5	뉴질랜드	96.5	덴마크	49	덴마크	49
26	말레이시아	11.5	라트비아	96.5	몽골	48.4	라트비아	48.9
27	바레인	11.56	체코	96.3	슬로베니아	47.3	슬로베니아	48.3
28	대만	11.8	그리스	96.2	이스라엘	46.3	네덜란드	45.7
29	덴마크	11.82	이스라엘	96.2	라트비아	45.9	프랑스	43.7
30	사우디아라비아	11.84	호주	96.1	그리스	45.2		
33	한국	11.92	터키	96	뉴질랜드	44.1	40.4	16.11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2024).



2024년 세계국가경쟁력과 한국의 교육경쟁력 분석



[4.5.09] 외국인 유학생 유입
(명, 인구1,000명당)⁽²⁰²¹⁾

[4.5.10] 국내학생 유학생 수
(명, 인구1,000명당)⁽²⁰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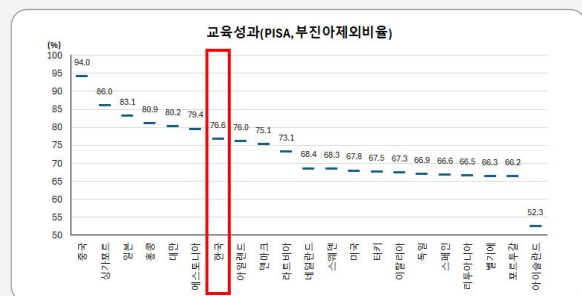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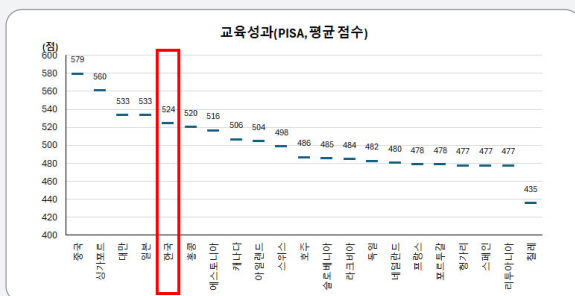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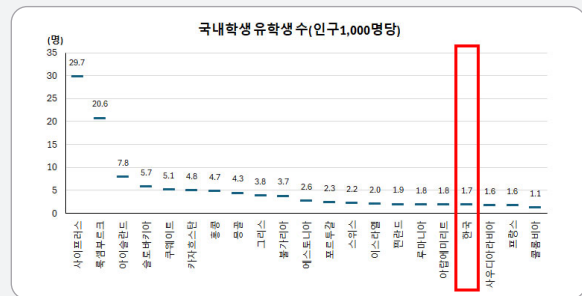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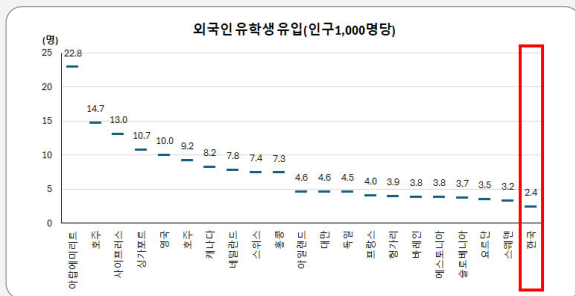
[4.5.11] 교육성과(PISA)
(평균 점수)⁽²⁰²²⁾

4.5.12] 교육성과
(PISA_부진아제외비율)
(%)⁽²⁰²²⁾

1	아랍에미리트	22.82	사이프러스	29.68	중국	579	중국	94	
2	호주	14.68	룩셈부르크	20.63	싱가포르	560	싱가포르	86	
3	사이프러스	12.97	아이슬란드	7.75	대만	533	일본	83.1	
4	싱가포르	10.68	슬로바키아	5.72	일본	533	홍콩	80.9	
5	영국	9.96	쿠웨이트	5.06	한국	524	대만	80.2	
6	호주	9.17	카자흐스탄	4.83	홍콩	520	에스토니아	79.4	
7	캐나다	8.18	홍콩	4.67	에스토니아	516	한국	76.6	
8	네덜란드	7.76	몽골	4.32	캐나다	506	아일랜드	76	
9	스위스	7.42	그리스	3.79	아일랜드	504	덴마크	75.1	
10	홍콩	7.34	불가리아	3.66	스위스	498	라트비아	73.1	
21	아일랜드	4.57	에스토니아	2.61	호주	486	네덜란드	68.4	
22	대만	4.56	포르투갈	2.32	슬로베니아	485	스웨덴	68.3	
23	독일	4.52	스위스	2.16	라트비아	484	미국	67.8	
24	프랑스	4.01	이스라엘	1.99	독일	482	터키	67.5	
25	헝가리	3.91	핀란드	1.86	네덜란드	480	이탈리아	67.3	
26	바레인	3.76	루마니아	1.79	프랑스	478	독일	66.9	
27	에스토니아	3.75	아랍에미리트	1.77	포르투갈	478	스페인	66.6	
28	슬로베니아	3.67	한국	1.74	헝가리	477	리투아니아	66.5	
29	요르단	3.47	사우디아라비아	1.62	28	스페인	477	벨기에	66.3
30	스웨덴	3.22	프랑스	1.61	리투아니아	477	포르투갈	66.2	
40	한국	2.39	콜롬비아	1.14	칠레	435	아이슬란드	52.3	

주: 국내 학생 유학생 수는 '배경자료' 지표를 의미함.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2024).



2024년 세계국가경쟁력과 한국의 교육경쟁력 분석



설문 조사(Survey Data)

[4.5.13] 영어유창성(TOEFL)
(점수)⁽²⁰²²⁾

[4.5.14] 초·중등교육
(점수/10)⁽²⁰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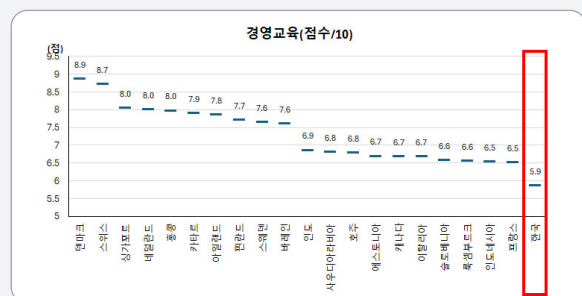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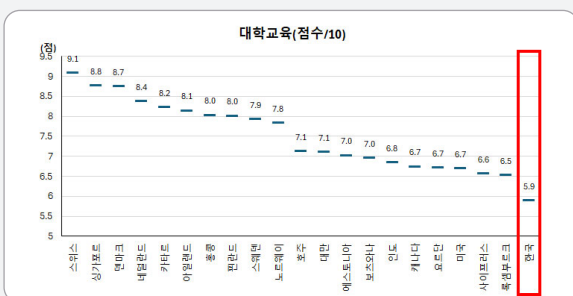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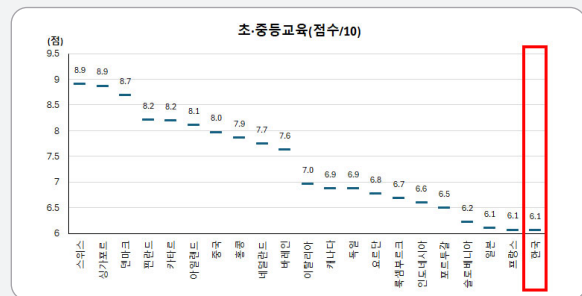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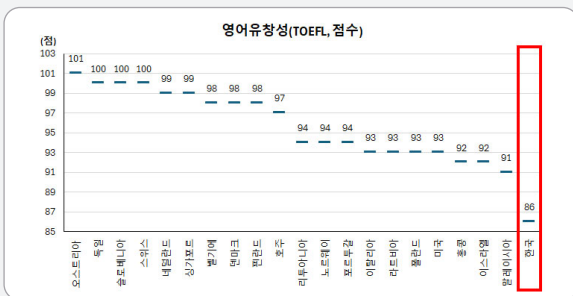
[4.5.15] 대학교육
(점수/10)⁽²⁰²⁴⁾

[4.5.16] 경영교육
(점수/10)⁽²⁰²⁴⁾

1	오스트리아		101	스위스	8.9	스위스	9.07	덴마크	8.85			
2	독일		100	싱가포르	8.86	싱가포르	8.76	스위스	8.7			
3	슬로베니아		100	덴마크	8.68	덴마크	8.74	싱가포르	8.03			
4	스위스		100	핀란드	8.2	네덜란드	8.37	네덜란드	8			
5	네덜란드		99	카타르	8.18	카타르	8.22	홍콩	7.96			
6	5	싱가포르	99	아일랜드	8.1	아일랜드	8.13	카타르	7.89			
7	벨기에		98	중국	7.96	홍콩	8.02	아일랜드	7.84			
8	7	덴마크	98	홍콩	7.85	핀란드	8	핀란드	7.7			
9	7	핀란드	98	네덜란드	7.73	스웨덴	7.91	스웨덴	7.64			
10	11	호주	97	바레인	7.62	노르웨이	7.83	바레인	7.59			
28	리투아니아		94	이탈리아	6.95	호주	7.11	인도	6.85			
28	노르웨이		94	캐나다	6.86	대만	7.09	사우디아라비아	6.8			
28	포르투갈		94	독일	6.86	에스토니아	7.01	호주	6.78			
31	이탈리아		93	요르단	6.76	보츠와나	6.95	에스토니아	6.68			
31	라트비아		93	룩셈부르크	6.68	인도	6.84	캐나다	6.67			
31	폴란드		93	인도네시아	6.59	캐나다	6.73	이탈리아	6.67			
31	미국		93	포르투갈	6.49	요르단	6.71	슬로베니아	6.57			
35	홍콩		92	슬로베니아	6.21	미국	6.69	룩셈부르크	6.55			
35	이스라엘		92	일본	6.1	사이프러스	6.56	인도네시아	6.52			
37	말레이시아		91	프랑스	6.06	룩셈부르크	6.51	프랑스	6.5			
48	한국		86	31	한국	6.05	46	한국	5.88	46	한국	5.85

주: 영어유창성은 '배경자료' 지표를 의미함.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2024).



2024년 세계국가경쟁력과 한국의 교육경쟁력 분석



[4.5.17] 대학교육인덱스(점수)⁽²⁰²³⁾
(타임고등교육 대학 순위기반 국가 점수)

[4.5.18] 비문해력(%)⁽²⁰²⁰⁾
(전체인구 대비 15세 이상 비문해율)

설문 조사(Survey Data)

[4.5.19]언어능력(점수/10)⁽²⁰²⁴⁾

1	미국	115.22	1	아르헨티나	1.0	덴마크	8.98
2	영국	72.03		호주		스위스	8.97
3	중국	45.44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8.80
4	이탈리아	40.46		벨기에		싱가포르	8.65
5	독일	38.91		캐나다		룩셈부르크	8.60
6	아이슬란드	31.01		크로아티아		바레인	8.57
7	호주	26.37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8.51
8	캐나다	26.25		체코		스웨덴	8.40
				덴마크		포르투갈	8.28
				에스토니아		아랍에미리트	8.24
				핀란드			
12	한국	21.28		프랑스			
				독일			
				홍콩			
21	사우디아라비아	14.73		헝가리		리투아니아	7.42
22	덴마크	14.07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7.24
23	벨기에	13.65		아일랜드		라트비아	7.22
24	대만	12.47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7.07
25	포르투갈	12.43		일본		오스트리아	7.07
26	홍콩	12.42		카자흐스탄		필리핀	6.98
27	룩셈부르크	12.16		한국		인도	6.96
28	노르웨이	11.08		라트비아		캐나다	6.88
29	에스토니아	10.42		룩셈부르크		독일	6.81
30	말레이시아	8.95		몽고		말레이시아	6.77
				네덜란드			
35	터키	7.47	-	35	한국	6.53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24(2024).

